

경제

식생활비 월 60만원... 서민가계 휘청

작년 식재료·식료품·비주류음료 등 크게 올라 연초부터 '먹는 물가' 급등... 올해도 부담 가중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먹는 데 쓴 가구당 지출액이 처음 월평균 60만원을 넘어선데다 올해도 연초부터 식료품 가격의 무더기 상승에 이어 외식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식생활비 월평균 60만원 넘어 = 6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농어가 제외 2인 이상)의 소

비지출 항목 가운데 '먹는' 지출인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식사비 등 2개 항목의 합산액은 가구당 월평균 60만 2604원이었다. 연간으로는 723만원으로 700만원선을 훌쩍 넘어섰다.

항목별로 보면 밥상에 올라가는 쌀, 채소, 육류, 수산물 등 식재료와 과자, 과일, 커피 등이 포함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가 31만6936원으

로 전년(29만7652원)보다 6.5% 늘었다. 외식, 배달음식, 주점, 커피숍 등 바깥 음식을 사먹는데 들인 식사비는 지난해 월평균 28만5668원으로 4.0% 증가했다. 이 두 항목은 가계소비 중에서도 증가폭이 크지 않은 항목이다. 7년 전인 2003년(식료품·비주류음료 25만5079원, 식사비 22만9525원)에 비해 나란히 24%씩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 35%에 훨씬 못미친다. 2개 항목의 연간 추이를 보면 2003년 48만4604원에 그쳤지만 2004년(52만1703원) 50만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07~2009년에 54만2980원, 57만9171원,

57만2438원 등으로 등락했다. 2009년에 일시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의 충격 때문이다.

◇연초부터 먹는 물가 급등-가계 부담 커져 = 가계의 식비 부담은 올해 들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생목이다. 7년 전인 2003년(식료품·비주류음료 25만5079원, 식사비 22만9525원)에 비해 나란히 24%씩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 35%에 훨씬 못미친다. 2개 항목의 연간 추이를 보면 2003년 48만4604원에 그쳤지만 2004년(52만1703원) 50만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07~2009년에 54만2980원, 57만9171원,

트였다. 농축수산물 기여도가 1%포인트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단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온도 변화에 따라 어획량 감소,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 파동 등이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식품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2월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 2월보다 3.8%, 전월보다 0.7% 올랐다. 이는 농축수산물 물가와 맞물려 외식물가 오름세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외식물가는 작년 2월보다 3.5%, 전월보다 1.4%나 올랐다. 2월 들어 외식 삼겹살은 전월보다 7.2% 올랐지만, 제주와 대전의 경우 한 달 사이에 각각 16.3%, 15.6%나 올랐다. 밀가루 값 비용이 커지면서 자장면, 짬뽕 가격이 들쭉이었고 빵 값의 오름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연휴**

주간 증시 포커스

금리결정 등 중요변수 줄줄이 대기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 주목해야

외국인 매도와 증발 불확실성으로 연중 저점을 경신하며 1,900에서 지지선 구축을 모색하던 KOSPI는 이를 동안에만 무려 76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2,000선 돌파에 성공했다. 격화일로로 걷고 있던 리비아 사태가 글로벌 공조 체제의 강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투자심리는 평상심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의 경우 1월 말 고점 대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3월 2일까지의 지수 하락폭은 약 9% 정도이나, 리비아 사태가 격화되기 시작한 최근 2주간의 하락폭은 4.2%에 불과하다. 투자심리의 위축 정도도 지난 해 지수 조정시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다소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3조7,154억원으로, 남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지난해 5월에 기록한 6조 991억원 순매도 이후 월간 최대 유출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탈된 자금의 대부분이 단기 투자성향을 지닌 유럽계 자금이었다. 연간 기준으로 유럽계 자금은 이미 2009년 순 유입된 4.7조원을 상회하는 9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국내증시에서 매도한 상황이다.

반면 장기투자를 주를 이루는 미국계 자금은 2009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26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수하였고 월간 기준으로는 2009년 4월 이후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이는 수급여건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기대비 증가를 꾀고 13개월 만

에 상승 반전한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동반 상승함으로써 현재의 경기가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어 있지 않다는 경기확장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순환적 조정이 나타난 다음 상승세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빠르면 3월 중, 후반부터 전개될 1/4분기 실적 시즌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신호를 던져줄 전망이다.

첫째, 경기 모멘텀과 기업이익 모멘텀이라는 두 가지 측면 즉, Top Down과 Bottom Up 측면에서 동시에 상승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우려와는 달리 1/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기대 되는 가운데 계절적 상승기인 2/4분기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점은 증시에 우호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결국 이제부터는 지수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는 금통위 금리결정, 쿼터릴 워싱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등 대내외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어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저평가 매수가 부각된 IT·자동차업종 그리고 선진국 경기 회복 모멘텀의 수혜가 예상되는 화학업종 내 대표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세균 막아주는 닥섬유
한지는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며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고 땀과 수분을 신속 방출하여 여름에 쾌적하고 겨울엔 보온성 뛰어난 특성이 있다.

광주신세계 (총괄임원 조창현) 지하1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10일까지 닥나무의 닥 섬유를 이용해 제조한 상품들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지는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며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고 땀과 수분을 신속 방출하여 여름엔 쾌적하고 겨울엔 보온성 뛰어난 특성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 대한통운 인수 여부 촉각

포스코·CJ와 3파전...광주신세계 운명 관심

롯데그룹과 포스코·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대한통운 자회사인 금호터미널과 임대차 관계에 있는 신세계는 인수전 참여를 공언했지만 최종 제출단계에서 "입찰 금액이 2조원 가까이 예상돼 실익이 없다"며 발을 뺐다.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삼성그룹과 해외 물류기업인 DHL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6일 M&A(인수합병) 업계와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입찰의 향서 접수 마감과 함께 인수전 참여 기업들에서 감지된 인수 의지만 놓고 보면 롯데→포스코→CJ 순이라고 할 수 있지만 M&A 특성상 결과를 속단할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참여 의사를 줄곧 가장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같이 대한통운 인수전이 롯데·포스코·CJ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대한통운의 자회사인 금호터미널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광주신세계의 운명에 지역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유통 라이벌인 롯데가 대한통운을 인수할 경우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덩어리로 얹게 돼 임대차계약만 되면 재계약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호남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시설 확충을 모색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의 전략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미분양 급감

1월말 1259가구... 30% ↓
국토해양부는 6일 1월말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가 1259가구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달(1809가구)보다 550가구(30.4%)가 줄어든 것이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1066가구에서 942가구로 전달보다 11.6%(124가구) 감소했다.

이는 민간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 미분양 물량은 2378가구로 전달보다 5.0%인 126가구가 줄어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GS건설 '첨단자이 2차' 대박예감

모델하우스 오픈 3일만에 1만여명 다녀가

광주 R&D(연구개발)특구와 첨단산업단지 배후단지로 개발대 효과가 높은 GS건설 '첨단자이 2차'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문을 연 '첨단자이 2차' 모델하우스에 연일 인파가 몰리고 있다. 개관 첫날 3000여명이 방문한 데 이어 주말·휴일 동안 1만여명이 다녀갔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업계 최초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분양 마케팅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2단계 인근에 위치한 '첨단자이 2차'가 이처럼 각광받는 이유는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 민간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데다 인근지역이 R&D특구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 기대효과가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단지 앞으로 상무지구 등 광주 주요지역을 연결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문을 연 GS건설 '첨단자이 2차' 모델하우스에는 사흘동안 1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가 높다. 특히 업계 최초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중소 44개 제품 우수조달 물품 지정

광주테크노파크 입주업체인 (주)나눔테크(대표 최무진)의 '저출력 심장충격기'와 영암군 소재 케이씨주식회사(대표 박주봉)의 '스칼렛점도벽돌' 등 44개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됐다.

나눔테크는 광주일보와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지방스타운 중소기업' 수상업체다.

또 케이씨의 '스칼렛점도벽돌'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레드머드를 사용해 기존원료를 대체하는 등 원가 절감 및 자연자원을 크게 절약한 제품이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1026개 품목 중 광주·전남지역은 35개사 40개 품목이 지정돼 전체의 3.9%에 그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경총 회장 유희열씨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3대 회장에 유희열(58) 부회장이 추대됐다. 취임식은 오는 11일 11시30분 광주 무등과 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유 신임 회장은 광주서중과 광주일고, 중앙대를 졸업했다. 광주전남무역협회 상임위원, 광주상공회의소 14·15·17·18대 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레드머드를 사용해 기존원료를 대체하는 등 원가 절감 및 자연자원을 크게 절약한 제품이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1026개 품목 중 광주·전남지역은 35개사 40개 품목이 지정돼 전체의 3.9%에 그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1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12개월 완성, 개별 특목수원 개강)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강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제 농업직 전국과제합격비율!	명품 "강력단과" 행정, 인사, 행정, 행정, 국어, 한문, 회계, 경제, 과학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12개월 완성, 개별 특목수원 개강)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